

추도사

박정희 대통령 각하

오늘로써 서거하신 지 39주년이 되었습니다. 삼가 평소 박대통령을 존경해 온 한 행정학자가 각하의 영전에 썼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나라의 근대화에 집중적인 정성을 드려 한강의 기적을 이루셨고, 그 덕으로 현재 우리들은 세계 어디에 가도 인정받는 선진국 대열에 섰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생활의 질(質)도 박대통령께서 만들어주신 기반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다시금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각하의 이 분야의 노력은 일찍이 중국의 등소평(鄧小平), 그리고 싱가포르의 이광요(李光耀)총리가 박대통령의 경제적 업적, 애국심, 검소한 생활, 강인한 人品을 매우 높이 칭찬한 바 있었습니다. 진실로 각하께서는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매우 높은 긍지를 심어주었습니다.

冒頭에 제가 행정학자라고 소개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각하께서는 행정학 분야에서 지대한 공적을 세우셨습니다. 한국 행정의 선진화의 주역이십니다. 그 중 몇 가지만 소개하면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먼저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를 경제개발하기 위해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실천하기 위한 구조로써 1961년 7월 22일 경제기획원을 만들었고, 기획처와 부흥부를 통합하는 그야말로 한국 행정 근대화에 선두에서 앞장 스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행정문서의 가로쓰기를 1961년 10월 시행하여 그동안 일

본식 세로쓰기를 바꾸는 영단을 내리셨습니다. 이는 참으로 중대하고 빛나는 행정의 근대화의 단면입니다. 동시에 대통령께서는 한글 타자를 장려하여 공문서의 근대화, 그리고 곧이어 발전한 정부 전산화에 앞장서셨던 공로자임을 제가 알고 있고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대통령께서는 1961년 10월 조달청 및 조달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당초 외자만 구매하던 외자청을 정부 내자 구매까지 할 수 있도록 조달청으로 확대 개편하셨습니다.

박대통령께서는 또한 복식 부기에 의한 회계제도 채택으로 대한민국 정부 회계 제도의 현대화를 기하셨습니다.

박대통령께서는 1962년 1월 기금제도를 도입(예산회계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장차 필요할 재원확충방안을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수입과 지출을 직접 연계하였습니다. 박대통령의 혜안이 없었더라면 이런 일이 일찍이 준비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날 힘을 많이 쓰는 감사원을 1963년 3월에 설립하셔서 회계를 담당하는 심계원과 공무원 기강을 다루는 감찰위원회를 통합하여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 일은 당시 공무원의 부정과 부패가 매우 심각하여 그를 방지 하기 위한 박대통령이 내린 용기찬 영단이 었습니다. 그 영단 높이 평가합니다.

또 한 가지 특기할 일은 박대통령께서는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를 신설(1963. 4)하여 공무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애쓰신 공적을 높이 평가합니다. 거듭 강조합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은 5.16 이후 이 나라의 행정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놓으신 것은 한강의 기적 못지않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존경하옵는 박정희 대통령

오래 전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우리도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고 하시면서 발표하신 새마을운동에 심취되어 본인도 우리 대학 새마을 연구소장을 여러 해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간직하신 좌우명, 본인에게는 매섭게 그리고 남을 위해서는 따뜻하라는 故事成語 지기추상(持己秋霜) 대인춘풍(待人春風)의 말씀을 저는 좋아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언제나 신상필벌(信賞必罰)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信念으로 온 국민을 음지에서 양지로 이끌어 주신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운동의 정신은 우리를 경제적으로 높여준 것만 아니라, 우리보다 못 사는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새마을운동의 국제화가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박대통령님의 정신과 방법론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대학 새마을연구소장으로 있을 때 특히 EROPA이라고 하는 행정학의 국제연합공공행정기구(Eastern Regional Organiz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본부가 필리핀 마닐라에 있음)에서 이 새마을운동의 우수함을 글로써 여러 번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학회의 규모와 역사로 볼 때 세계에서 제일 큰 미국 행정학회(ASPA)에서 많은 학술 활동을 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이 많이 발표되고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새마을운동은 박정희대통령의 창조성의 발휘로 인정되어 세상을 떠나신 후에도 활발하게 많은 나라들에게 전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정희대통령의 뚜렷한 업적은 남북격차에 있습니다.

박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는 자유민주제 그리고 市場경제 제도를 처음부터 견지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인민민주제(내용은 3代 세습)와 통제경제제도를 택했습니다. 오래도록 이런 대결이 있어 왔는데 그 격차는 일본 야노(矢野恒太) 기념회에서 발행하는 世界國勢圖會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GDP에서는 한국은 1조3천7백7십8억7천3백만불-1377,873(단위 백만불)-인데 비해 북한은 162억8천3백만불-16,283(단위 백만불)-로 약 70배이며, 개인당 소득면에서는 한국은 2015년 기준 27,524\$인데 북한은 불과 652\$이니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 사람보다 약 40배 높은 소득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박정희대통령께서 만들어주신 대결구도에서 우리의 완전 승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행정학을 일생 공부한 본인으로서 다시금 박대통령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日本에서 매년 발행되는 이 야노 통계는 과거 28년 동안 발행된 國勢에 관한 가장 믿을 만한 종합통계자료입니다.

남북의 격차가 이렇게 놀라운 차이를 가져온 것은 다시 말할 필요 없이 박대통령께서 좋은 정치구조와 경제체제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 일부에서 박정희대통령이 독재를 했고, 천일파라고 비난하는 부류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매우 잘못되고 말도 안 되는 비방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살고 싶은 나라이고 북한은 남한으로 넘어온 태영호씨의 말을 빌린다면 인민민주주의를 표방하나 ‘王政은 있고 人民은 없고 노예만 있다’는 말이 가슴에 강하게 와 닿습니다.

이런 경제적으로 최빈국인 북한이 우리와 우리 민족끼리의 방식으로 지내자는 눈치가 보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로켓, 그것도 대륙간 탄도탄(ICBM)으로 우리와 미국을 위협했고, 상당한 핵폭탄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미국과 UN의 강력한 규제를 받아왔습니다만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미·북한 영수회담을 하여 세계 평화가 일단 유지되고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박정희대통령.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의 소견으로 미국이 북핵을 완전히 제거하고, 비핵화 후 UN이 이를 확인한 후 우리와 북한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대통령의 해안과 좋은 판단이 몹시 고대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끼리의 남북평화는 먼저 북핵이 제거된 후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정치체제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박정희대통령 각하의 이룩하신 위대한 수많은 업적 중의 그 일부만 말씀드렸으나, 다시 한 번 그 위대함을 상기하면서 각하의 유지를 옹계 계승하는 우리가 되도록 각하의 영전에서 굳게 맹세합니다.

각하와 육여사님의 영생복락 누리실 것을 빕니다.

2018년 10월 25일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전)한국행정학회 회장

유 종해 복배



연세대 명예교수(행정학)

태평관 기영회 종신회원

한국행정학회 회장(1984-5년)

서울대 법대졸업(1954년)

미국 미시간대학교 정치학박사(1968년)

연세대 행정대학원장(1994-6년)

한미협회 부회장(2016-

이북5도청 함경남도 행정자문위원장(2004-2010년)